

도서평가의 메시지

李千孝

동래여자전문대 도서관학과 교수

컴퓨터 기술의 발전, 컴퓨터의 저가격화, 중소기업과정에서의 컴퓨터 등장, 개인 컴퓨터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정보화사회, 바꿔 말하면 고품질의 컴퓨터와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에서 고도의 정보통신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는 힘과 권력 및 재화이므로 국가와 기업 및 개인의 발전을 좌우한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주된 관심이 물건이 아니라 정보이므로 사회적으로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것으로 변화되며, 개인적으로는 자기 성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 더욱이 공장 및 사무자동화로 인하여 시간의 활용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출판문화를 통하여 수준높은 정신세계를 향유할 수 있다. 출판문화는 독자가 책을 읽고 정신적 양식이 하나의 결정체로 침전되어 인간의 정신활동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인 판단력 형성의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독서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판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올바른 독서활동은 새로운 문화 창조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서출판을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도서관과 정보센터는 출판의 결과인 도서를 보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용자는 물론 잠재적 이용자까지도 독서행위와 연결시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 출판은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기관의 정보 중 주종을 이루는 도서와 이용자를 결합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가 서평이다. 서평이란 독자의 태도나 의견, 행동 등을 변용시키고자 하는 출판사가 새로 출판한 도서를 매스컴에 보내면 거기서는 자의적 노력을 통하여 도서평가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여 그들로부터 의도했던 반응을 유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보산업의 영향으로 도서의 발행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독자가 다른 참고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서에 대한 평가 즉 서평에 의지하게 된다. 만일 정보가 비도서자료에 축적되어 있다면 독자가 서평을 참고하지 않고 서는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우선 서평을 통하여 자료의 선택여부를 결정한 다음 원자료에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평이용자가 서평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서평의 정확성과, 최신성, 다른 도서 혹은 같은 도서의 전판과 비교, 서평자의 반론이나 독자의 참여, 서평자의 권위와 편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간안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서평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첫째, 북재킷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거나 서평광고에 의지하여 작성한 ‘자화자찬적 광고형 서평’ 둘째, 독자가 도서 특히 소설을 읽어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것의 플롯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이야기 전개형 서평’ 셋째, 도서에 대한 서평이 아니라 저자가 쓴 주제에 대한 서평자의 지식이나 도서의 탐독 이후 일어나는 서평자의 감정에 의지하고 있는 ‘서평자에 대한 비평형’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도서출판량의 급증,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전자출판과 전자도서관, 비도서자료의 이용증대, 독자의 전문지식의 한계성 등으로 독자를 도서에 연결하는 데 서평이 결정적 매체 역할을 담당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도서의 내용과 형태 등에 대하여 서평자의 비판 없이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기술적 서평에서 과감히 벗어나 서평자가 자신의 판단력에 바탕을 둔 비평적 서평도 병행하여 올곧은 서평 문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출판저널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1991년 5월 20일 제84호
격주간·매월 5, 20일 발행

- | | |
|--------|--|
| 뉴스 | 2 간행물납본, 중판에는 해당 안돼·외 |
| 표지 | 4 우리들 모두의 가장 크고 넉넉한 광장
개장 10주년 맞는 교보의 어제와 오늘 |
| 6 | 우리들 '책문화'의 핵심적 상징 – 이중한
교보는 이제 하나의 서점만은 아니다 |
| 7 | "그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진다" – 마주르
소련인 한국어 교수가 가 본 교보문고 |
| 8 | 사회학연구회 「사회계층」 – 임영일
강철규 외 「재벌」 – 백죽인 |
| 9 | 三宅英利 「근세한일관계사연구」 – 하우봉
김홍철 「전쟁론」 – 김홍우 |
| 10 | 방학봉 「중국동북민족관계사」 – 김구진
보음 「현대물리학의 철학적 테두리」 – 김용준 |
| 11 | 김성기 「포스트모더니즘과 비판사회과학」 – 김성언
서범석 「한국농민시연구」 – 신철하 |
| 12 | 서정인 「봄꽃 가을열매」 – 이동하
박이도 「홀로 상수리나무를…」 – 김종희 |
| 13 | 문학지의 장르분화, 비평지 창간붐
「현대예술비평」 등 5종 새로 선보여 |
| 14 | 지금 왜 다시 러시아문학인가 – 이권우
굵직한 기획 연이어… 시장성은 불투명 |
| 16 | 책으로 살피는 결혼의 진정한 뜻 |
| 17 | 禪사상, 더이상 不立文字 아니다 |
| 18 | 아동문학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 – 조대현
‘명랑소설’ 등 대중물에서 배울 점 적지 않다 |
| 리포트 | 20 ‘컴퓨터 한글’ 이대로 좋은가 |
| 창간호 | 21 「과학세대」「법철학과 사회철학」 |
| 이책그사람 | 22 「섬에서 섬으로」 펴낸 이유범씨
「번역이란 무엇인가」 펴낸 유영란씨
23 「이어령문화주의」 펴낸 박기현씨
「바리리를 뒤집어 입은 남자」 낸 이진수씨 |
| 나의 첫책 | 24 아주 먼옛날 추억의 연금술 – 정현종
변치 않는 내꿈 「사물의 꿈」 |
| 화제의 책 | 25 “거문고 그 소리에 한가락 대노라니” |
| 해외화제 | 26 막내린 美 캐리어우먼 誌 시대 – 이봉호 |
| 세계의 출판 | 28 美英 밀월관계의 세계사적 의미 |
| 30 | 이달의 청소년도서 |
| 32 | 신간안내 |
| 40 | 200 자 안내 |
| 42 | 신간목록 |
| 48 | 프리즘 / 재미있는 책 이야기 / 정기구독안내 |